

3·1운동, 5·18...대한민국 역사 바꾼 10대 사건

광주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28일~12월 15일까지 전시회
광주 특성 반영한 10가지 주제 선정
역사콘서트·설명회도 열려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광복과 혼란,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6·25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위에 열거한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 물줄기를 바꾼 10대 사건이다.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숨 가쁠 정도로 격랑의 역사를 헤쳐왔다. 토인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표현대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시관 1층에서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현대사 전문박물관인 대한민국의사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역시 서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번째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번 기념 전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과 함께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1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각각의 주제는 격동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사건이 발생한 순으로 2개의 주제를 묶어 열리며 주제별로 생동감 있는 사진과 관련 자료 10점씩을 공개한다.

첫 번째 전시(28~4.14일)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주제다.

제1주제 '3·1운동'에서는 '3·1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1운동에 대해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등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3·1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수피아여자고생들의 사진과 함께 만세시위 현장 사진을 선보인다.

제2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다양한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와 사진 등이 전시된다.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학생들.



1920년 1월 1일 임시정부 신년 축하식 기념 사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전시와 더불어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초청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가제)라는 주제로 역사콘서트(4월 5일 오후 3시)도 연다.

두 번째 전시(5월 13~6월 16일)는 각각 '독립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의의와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전시(7월 15~8월 25일)는 광복을 전후로 한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광복과 혼란',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주제로 당시의 상황과 격동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전시(9월 23~10월 27일)의 주제는 '6·25전쟁'과 '4·19혁명'이다. 각각의 전시는 동족상잔의 비극,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의했던 민주항쟁을 다룬다.

마지막 전시(11월 11~12월 15일)는 민주화항쟁이 주제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을 모티브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인 5·18과 87년 민주항쟁을 조명한다.

한편 각각의 전시 일정에 맞춰 최명희 광주박물관 연구사의 설명회도 준비해, 역사를 바꾼 10장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모든 전시를 관람한 분과 전시 감상문(100글자 내외)을 보낸 이들에게는 선물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gwangju.museum.go.kr) 참조. 문의 062-570-70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예술인 창작기반 조성·문화예술 향유 40억 투입

전남문화관광재단 올 사업계획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용익)이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의 대표 지원사업 중 하나인 지역 예술인 창작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 향유사업지원은 올해 모두 40억 4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공연·시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에 23억 4000만원이 지원되며 지역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는 7억6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에 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획사업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서화·판소리 등 12개 장르를 소재로 한 기획사업을 발굴해 전남만의 특화된 브랜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획발굴과 사업 실현 등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해의 관광객과 MICE 유치 마케팅 강화도 재단의 올 역점 사업중 하나다. 지난해 크루즈(6차례)를 이용해 전남을 찾았던 해외 관광객은 약 1만 1000명으로 중국·일본·대만이 주류를 이뤘다. 올해는 미국까지 확장, 모두 2만여명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안공항의 9개 정기노선 이외에도 3월에 신설될 도쿄, 마카오, 블라디보스토크 3개 노선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 모집에 나서며 국제회의의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복원 정비로 마한사 실체를 규명하고 고대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지속한다. 올해는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전남도 기념물 제 151호) 발굴사업과 전남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마한 분묘유적 조사 및 자료집을 발간한다. 또 고대문화권(마한·가야) 정립을 위해 한·중·일 및 타 지역 마한문화권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학술대회와 총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 단체 연주 모습.

동심에 대한 통찰력, 서정의 언어 오롯이 곡성 출신 성명진 시인 동시집 '오늘은 다 잘했다' 펴내

아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눈길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그린 동시집이 발간됐다. 곡성 출신 성명진 시인이 펴낸 동시집 '오늘은 다 잘했다' (창비)에는 동심에 대한 통찰력과 아울러 깊은 서정의 언어가 오롯이 담겼다. 그간 시인의 동시 세계에서 신나게 떠돌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순간순간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번 시집에서도 여전하다.



고 말해 보자. 나연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들 죽어라고 뛰었잖아.// 우리 모두 잘했다. 박수 치자 짹짹. ("오늘은 다 잘했다" 중에서)

표제시 '오늘은 다 잘했다'는 축구 경기에서 다른 팀을 이긴 꾸밈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시인 특유의 섬세한 눈빛과 아이들의 빛나는 생명이 잘 어울린 작품이다. 이중일 아동문학평론가는 "성명진은 아이들의 마음을 정갈하게 대변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감동을 전한다"며 "새롭지만 모호하지 않고, 뚜렷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언어들의 조합. 진실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힘. 성명진의 동시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평했다.

한편 성명진 시인은 1993년 '현대문학'이 시가 추천돼 작품활동을 했다. 동시집 '죽구부에 들고 싶다', '걱정 없다 상우'와 시집 '그 순간'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1운동 100주년 맞아 '대동여지도 한글 축쇄본' 발간

최선웅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동여지도 한글 축쇄본이 발간됐다.

최선웅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가 펴낸 '대동여지도 한글 축쇄본' (진선)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 편찬한 대동여지도를 문고본 크기로 축

소하고 지명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우리 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지도다.

모두 2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펼치면 가로 3.8m, 세로 6.7m에 이른다. 건물 3층 높이의 대형 전도다. 오늘 날 남북 분단으로 북녘땅은 오갈 수 없지만



대동여지도로 북녘의 산하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번 축쇄본에는 원본 지도의 지명과 주기에 한글을 병기해 지도를 읽기 쉽게 했고, 대형 지도를 축소해 엮어 펼쳐볼 수 있다. 1861년 판본을 55%로 축소했으며 지명 1만 1677개에 한글로 토를 달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h3>초대 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백세 짬뽕미식당</h3> <p>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p> <p>☎061)332-7313, 010-8224-7313</p>	<h3>청학 철학원</h3> <p>북구 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동양 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진주공방</h3>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p> <p>☎010-3906-1718</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h3> <p>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p> <p>☎062)236-1121</p>	<h3>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h3> <p>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p> <p>☎010-9277-2011, 010-4624-8457</p>
<h3>하안나라 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레벨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그 집 고기</h3>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 예술의 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서울표구점</h3> <p>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p> <p>☎010-3633-2790</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062)263-2223</p>	<h3>박당 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석당 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 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해피니스요양병원</h3> <p>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p> <p>☎062)251-8400</p>			